

圖書館과 靑少年 讀書教育

梁 泰 鎮
統一院 圖書室

1. 序 言

오늘 날 圖書館의 機能은 매우 多元化하여져 가는 現象으로 特히 公共圖書館에서의 讀書問題는 매우 深大한 問題가 아닌가 生覺된다.

言必稱 讀書가 平生教育이라 한다면 平生教育을 爲한 圖書館에서의 讀書問題는 보다 深化된 計劃속에 이루어져 나가야될것으로 生覺되어 이에 대한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2. 讀書를 통한 人間敎化

橋導所를 增設하느니 보다는 敎會를 늘리라는 말을 들은적이 여러번 있다. 이말은 人間敎化를 爲해 宗教에 力點을 두고 한말이겠으나 이에 못지않게 人間敎化 機能으로 讀書를 통한 役割이 重要함은 오늘날 모든 識者들이 強調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이렇듯 重視되고 있는 讀書란 自然發生의 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人爲的인 讀書敎育과 讀書環境造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讀書敎育에 있어 특히 고려되어야 할것은 敎育者와 被敎育者가 同一하다는 點이다.

一平生을 두고 해나가는 읽기 敎育은 非形式的인 敎育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時間的 空間的 制限이 없이 실시할 수 있는 敎育인 것이다. 그러기에 平生敎育에서는 形式敎育과 다른 오직 敎育主體者 自信에 달려 있는 것으로 항상 自意의인 의도가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讀書敎育의 效果를 얻기는 매우 어려운것이다.

그러면 讀書敎育의 效果를 얻기 위한 읽기 敎育의 形態에는 어떠한 行爲가 先行되어야 하는가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一般社會人, 직업인이 자기敎育을 위한 目標에 부합되도록 讀書行爲를 成立시키도록 條件을 갖추게 하는 일이다.

社會人, 職業人으로서의 個個人의 要求에 맞는 冊, 文獻, 시청각자료 등에 대한 접촉, 검색의 改善를 비롯하여 개개인을 포함한 사회나 직장의 敎育主體로서의

노력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읽기 敎育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인간배려이다.

읽기의 成立, 深化는 개개인의 의도적인 노력이 主軸이 되어 人間的 社會的關係에 따라 促進되는 것이다.

읽기에 있어서 人間關係의 形態로서 듣기와 모여 읽기의 두가지 類型이 있는데 듣기는 스승을 求하는 자세이며 모여읽기는 벗을 求하는 자세이다.

셋째로, 읽기敎育은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으로 만족하는것이 아니라 소기의 目的達成에 이바지해야 할 使命을 가진다는 점에서 社會人 職業人으로서의 實生活에 끊임없이 반영하여 敎育성과가 성취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Reading feed back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검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3. 讀書敎育의 展開 및 實踐計劃案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近代化의 發展過程을 살펴보면 共通要素로 地勢와 交通망등으로 세분된 소단위 지역의 개발이 절대적 요건이 되고 있음은 國家發展의 歷史가 證明하고 있다.

이러한 소단위 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그 지역에 기존하고 있는 各급 讀書施設活用の 극대화는 무엇 보다도 時急하다.

오늘 날과 같은 우리의 현실로는 地域別로 소개하는 기존敎育시설기관인 學校시설을 우선 活用하여 鄉土社會의 바람직한 개발이 상호보강 작용하는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 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讀書敎育 機能을 갖춘 公共圖書館이 母體가 되어 유관단체인 마을문고, 새마을회관, 문화원, 직장문고 등 이제까지의 機能을 보다 實効있고 적절히 活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地域單位的 公共圖書館은 상기한 諸般 讀書施設들의 據點이 되어 讀書敎育을 爲한 地域單位的 進取者로서 地域社會의 住民들을 위한 敎養과 知識, 情報를

提供하여 市民의 人格涵養과 地域社會 住民의 職業發展을 爲한 功能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서 國家産業發展에 기여함과 아울러 民主市民으로서의 資質을 함양시켜 오늘날 社會問題化 되고 있는 靑少年問題들을 淳化시켜 나가도록 奉仕機能을 擴大, 強化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讀書教育기능의 據點이 될 公共圖書館은 數的으로 不足함은 勿論 또한 施設面에서도 매우 빈약

이들 諸國들의 圖書館機能을 여하히 讀書教育에 活用하고 있는가를 美國을 비롯한 덴마크, 英國 등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나라로서관계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이를 기술하여 보고자 한다.

1) 美 國

美國은 이미 1922년경부터 靑少年들의 讀書資料選定에 주목하여 1922年 M.S. Wilkinson이 靑少年들이 읽

지 역 별	인 구 수	도 서 관 수				총 장 서	문화원	마 문 울 고	리·동	가 구 수
		공공	특수	대학	학교					
서울	6,289,556	7	68	50	698	8,444,462	—	10	317	1,215,538
부산	2,071,950	3	7	9	260	2,062,612	—	75	159	405,904
경기	3,537,210	16	5	7	1,213	1,598,045	15	5,068	2,258	668,792
강원	1,852,456	9	—	6	861	349,828	12	1,738	2,250	339,751
충북	1,518,681	7	2	6	548	863,351	10	2,630	2,470	261,919
충남	2,923,070	10	1	6	1,035	1,256,520	17	4,249	4,354	494,000
전북	2,452,648	10	1	8	899	540,910	15	1,870	5,053	416,037
전남	4,098,549	14	1	10	1,453	1,665,225	22	6,488	6,325	692,461
경북	3,220,725	17	2	7	1,428	3,096,102	23	6,736	5,535	563,580
경남	3,202,082	13	7	9	1,235	1,175,043	20	5,844	2,464	567,053
제주	390,450	2	1	4	167	199,739	—	294	201	84,337

한 상태에서 올바른 기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나 부족한 시설이나마 당면한 讀書教育機能만이라도 강화하기 爲하여서는 圖書館이 讀書教育機能의 핵심체로서 有關團體間的 諸般 施設들을 살펴, 이들 시설들을 讀書教育機能施設로 活用하도록 促進시켜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현황은 어떠한가를 살펴 보자.

위의 통계로 보아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수는 대략 4,294개관에 장서수는 20,356,494권, 열람좌석수는 341,856석에 연건평수 112,916,857명으로 나타났다.¹⁾

여기에 마을문고수 35,011개처와 장서보유량 2,103,720권에 회원수 493,714명등²⁾ 공식 비공식의 직장문고 24,626개의 새마을회관등에 속한 讀書資料, 그리고 기타 각종 단체 및 독서회 등을 포괄한다면 앞으로 독서 교육 기능을 爲한 低力은 결코 빈약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다.

4. 先進諸國에서의 靑少年들을 爲한 公共圖書館에서의 讀書教育

한나라의 장래를 짚어지고 나갈 靑少年들의 독서경향에 대하여서는 國家는 勿論 學父母 學校先生들을 비롯하여 은국민이 至大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各國의 共通된 事情이다.

이러한 면에서 오래전부터 先進諸國들은 靑少年들을 爲한 讀書教育을 爲한 圖書館奉仕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을 소설류(Fiction reading for older boy and girl)에 대한 研究發表를 하였고 1924년에 Agness C. Cook 이 연령계층에 따른 少女들의 讀書物이(Books for girl of the different ages)라는 論文이 나왔으며³⁾ Stock 출판사측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양서(Better books children and young people)라는 Emily P. Strect로 하여금 연구발표하게 하였다. 이렇듯 靑少年들을 爲한 讀書關係 研究發表가 續續 나오자 일부도서관들 중에는 靑少年들을 爲한 讀書資料를 모아 별도 配架를 하고 靑少年들만을 위한 독서분위기 조성에 힘을 기울여 누구든 열람실에 들어가면 책을 읽고 싶은 의욕을 자아내도록 하였는데, 이중 가장 大規模의인 施設을 하게 된것이 1925년 Cleveland 공공도서관의 Robert Louise Stevenson이란 명칭의 열람실이었다.⁴⁾

이 열람실은 주로 高等學校 學生을 대상으로 설비를 갖추고 學生들의 흥미를 북돋울수 있는 매력적인 많은 圖書를 陳列하여 高等學生들이 아니더라도 同年輩의 職業靑少年들에게까지도 最善의 奉仕를 다하였다.

이 밖에 靑少年들을 위한 圖書解題目錄을 펴내고 靑

1)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통계. 1975.
 2) 문고통계연보, 1975.
 3) Cook Agnes C. Books for girls of the ages, public libraries vol. 123 No. 33 p. 33, 1924.
 4) Roos, Jc. A. Adolescent readin gand the Stevenson Room Libraries, Vol. 31, No. 450, p. 53, 1926.

少年讀書를 爲한 專任擔當者를 배치하여, 讀書指導 및 상담에 응하도록 하였다.

1930年 Los Angels에서 有은 A.C.A 회의에는 Young Peoples Reading Round Table이라는 단체를 結成하고 그 主要事業으로 靑少年 Service를 爲하여 靑少年讀書 專擔을 爲한 전문직을 양성하고자 도서관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토록하여 60명의 전문사서를 靑少年圖書館 전문자로 배속하였다.

이러한 봉사는 2차대전전까지 계속하여 왔으나 대전 후 美國內의 靑少年들의 범죄년령이 점차 낮아져 평균 13세~14세의 소년범죄가 증가되어, 뜻있는 이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그리하여 美國圖書館界는 青年령층에 대한 圖書館奉仕의 缺陷이 있지않나 관심을 두게 되었고 마침내 1953年 메트로이트 公共圖書館이 靑少年 전용열람실을 特設하게 되자 他圖書館들도 靑少年열람실을 다투어 두게 되었다.

특히 이같은 Service Point에 박차를 가하게 된것은 1964年 美合衆國 연방도서관 봉사법의 公布로 大都市 公共圖書館의 中心이 되어 美國內 各州와 County에 圖書館事業을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1964년에는 연방 도서관 봉사 및 건축법이 公布되어 法的 뒷받침에 따른 예산이 연방정부에 의해 주어져 全國各處의 圖書館은 활기찬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특히 뉴욕주같은 곳에서는 靑少年 Consultant 제를 두어 공공도서관 靑少年 서어비스를 지도하고, 이에 相談하였으며 이를 市·郡 마을의 圖書館까지 施行할 것을 계획하여 1차적으로 地方公共圖書館員의 靑少年 봉사를 爲한 연수를 시켜 나갔다.

이 계획은 5개년계획으로 地域社會圖書館員 연수과정 등을 두어 43시간의 커리큘륨을 두고 研修希望者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뉴욕주가 실시한 이러한 Consultant 제는 그후 각주가 채용, 전국적인 基準이 되었다. 이처럼 全國的인 기준이 된 Consultant 제도는 當初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계획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의 도서관 발전 계획을 세워 도서관활동을 지도하며, 도서관 활동에 있어서 특수한 System의 必要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洲內全域의 System, Staff會議를 計劃하고 全般的인 地域 System 計劃의 Work Shop을 開催, 장려 및 지도하며 아울러 실험계획을 시행한다. 그리고 System 活動의 조정 및 System 新設의 지도靑少年關係의 機關과 協力 및 연락을 하고 이밖에 他 部局과 協力한다.

圖書館學校나 教育大學과의 Communication을 갖기

며 全國的인 圖書館界 活動計劃을 豫告 또는 豫知한다.

特記할 것은 1963年 美國圖書館協會는 3日間의 會議를 開催하여 靑少年을 爲한 3단계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靑少年들을 爲한 時急한 奉仕對策을 應급대책과 當面政策, 장기대책을 세워 이를 추진하는 정도로 靑少年을 爲한 圖書館奉仕活動을 벌이고 있다.

2) 덴마크

유럽의 圖書館이라고 할만치 圖書館이 많은 덴마크는 大都市에 부터 시골벽지까지 內國人이든 外國人이든간에 구분없이 (심지어 一時的인 체류자나 觀光客에서까지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 奉仕機能속에도 1950年代에는 13세에서 18세까지의 靑少年을 爲한 별도의 보다 나은 奉仕를 하기 위해 靑少年圖書館을 확장하였다.

이 같은 배려는 當時의 靑少年들이 전시중에 태어나 자라난 관계로 충분한 讀書教育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도에서였다고 한다.

靑少年圖書館에서 充分한 讀書力을 갖추지 않으면 成人部의 讀書力을 따를수 없게 되어 靑少年들의 讀書觀心은 매우 높다고 한다.

大都市의 圖書館들은 청소년부를 따로 두고 수 많은 學校측과 연결을 맺어 靑少年團體 및 그룹과의 접촉을 갖도록 協力하고 있다.

1960년에 덴마크圖書館協會는 常設 靑少年委員會를 設立하여 同委員會로 하여금 靑少年圖書館事業(Bibliotheks Arbejde Blandtunge)으로 발행하는 “靑少年코너”(Ungdoms hjaernet)에 論文과 適書目録을 실어 발행하고 있으며 出版社측과 協助하여 靑少年들을 爲한 예능, 스포츠, 레크레이션등 최신의 정보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편집하여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⁵⁾

1960~1964년에는 圖書館學校 측에 靑少年指導業務를 담당할 指導者의 研究를 하게 하기도 하였다.

해마다 靑少年 Book Market라고 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全國圖書目録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1963년에는 도서관지도관부를 설치, 靑少年지도관을 편성 圖書館協會와 연결을 갖도록하고, 靑少年과 도서(Ungdom og boger)라는 季刊誌를 發行, 무료로 靑少年 團體기관등에 배포하고, 1964년에는 圖書館協會中心으로 靑少年 讀書運動분야에 活動하는 도서관원을 모집하여 靑少年 Service Group을 결성하고 靑少年들의 讀書教育을 爲한 광범위한 운동을 펴나가고 있다.⁶⁾

5) Simpson, Elaine. Student Use of Public libraries, Copenhagen Bibliotekscentralen 1968, p. 46.

6) Stenkilde Helge Public Library Service to Young Adults in Denmark, Library Service Young Adults. 1968, p. 35.

3) 西獨

서독은 參考業務담당司書가 靑少年을 위한 지도상단을 하며 靑少年 Catalogue를 발행하고 年령계층에 따라 도서배가를 區分하여 선택기준을 정하여 준다.

대도서관에서는 小說類의 復本配架, 靑少年을 爲한 小說類들을 別치하여 두고 자유로히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에서도 靑少年 서비스연수를 거친 직원이 상당수 있어 이들이 참고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도서활용에 숙련되고 교육관이 서있는 年령층에 따라 도서지도를 하는데 6세에서 13세 14세 또는 13세~14세, 15세~16세로 구분, 아동발달에 따른 教育心理를 援用하여 靑少年들의 도서지도를 하고 있다.⁷⁾

4) 英國

英國은 世界에서 産業革命이 가장 일찌기 일어난 나라로 靑少年 노동자가 많이 발생하여 이들에 대한 人道主義의 立場에서 그 구제책이 當국자들로 부터 고려되었고 靑少年圖書館도 그러한 立場에서 奉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圖書館은 1주일에 적어도 몇일간은 6~9시까지 夜間讀書室을 운영하고 靑少年 근로자들을 爲한 좌석을 언제나 確保하여 둔다.

1919년에 이미 靑少年을 爲해 大圖書館들은 分館을 設置하였고, 1927년에는 14개의 靑少年 圖書館을 設置하고 1930년에는 靑少年열람실에 감독관을 배치하여 지도하게 하고 1923년 노팅엄 북부분관은 靑少年讀書를 爲한 目錄을 만들었고 1926년 영국 카네기재단은 靑少年을 爲한 圖書구입비를 보조하여 주었으며 이때 부터 靑少年圖書館, 圖書目錄을 Charles Norwell에 委囑하여 Books to read라고 하는 List를 작성케 하여 英國圖書館協會에서 발행하였다.

1934년 런던 부근의 도서관들은 봉사면에서 적어도 5% 이상 靑少年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도록하였으며 1944년에 教育法이 改正되어 靑少年을 爲한 자료수집이 中等學校 圖書館事業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1968년 Lincoln 公共圖書館은 靑少年圖書館 獨立館을 세워 讀書室, Hall, Blowing Room을 갖춘 모범적인 靑少年도서관 建物과 施設을 갖추고 1970년대에는 靑少年을 爲한 圖書館奉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그 영향이 英國全域에 미치었다.⁸⁾

이밖에 불란서, 스페인, 캐나다, 필랜드, 폴랜드, 스웨덴등 世界各國은 靑少年 讀書教育을 爲한 政策을 펴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고 있는 靑少年들의 社會問題에 예리한 주시를 하고, 이에 대한 선도책으로 圖書館의 讀書敎機能을 적극적으로 活用하고 있는 것이다.⁹⁾

5. 讀書教育을 爲한 讀書會組織 및 運營

讀書會란 독서를 하고 서로의 意見을 交換 하고자 모임을 갖는 것을 말한다. 讀書會의 構成員은 讀書 및 기타 분야에 있어 취향이 같은 사람끼리 조직하는 것이 常例이며 이들을 비슷한 年令에 취미, 교양, 직업계층이 유사하고 항시 친근감이 감돌며 同志의인 의식이 胚胎하여 健全한 社交로 서로의 人格啓發이 은연중 風靡하게 되어야 한다. 조직체계는 輪番制의 幹事를 두어 독서자료의 보관 정리를 하고 회의의 司會記錄, 會計를 맡는다.

可能하다면 學文과 덕망있는 인물로서 회원들의 추앙과 존경을 받는 지도자를 두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독서회는 사회적으로 활동력이 있는 분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他讀書會等과의 연관을 맺어 運營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理想的이다. 讀書會의 運營은 每月 1회~2회로 하고 처음에는 친구들간의 答問과 같이 구속없는 Free talking으로 하여 그 의견교환이 흥미롭고 구상없도록 해야하며 團地감이나 무미진조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時間이 거듭되는 가운데 평소에 흥미를 느낀 것, 깊이 생각하게 된 것, 새로히 깨달은 것,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 등을 주제로 모아 이야기 하도록 한다. 발표를 할 때에는 남들이 충분히 알아 들을 수 있게 해야 하며, 흥미롭고, 조리있게 해야한다.

이같은 기쁨이 어느정도 잡혀지면 각자 읽은 책들을 가지고 토의를 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leader는 독서회의 토의 내용 깊이 및 오류를 바로 잡아 깨우쳐 주고 독서방법 숙독 및 독해력 증진을 위한 지도를 하는 것이다.

讀書會는 대체로 輪讀會式, 研究會式, 發表會式이 있는데 輪讀會라 함은 같은 책을 서로 돌려가며 읽고 난 후 獨후감을 발표하고 評을 해서 점차 讀書水準을 높여가는 方法으로 輪讀會式의 長點은 同一資料가 一時에 많이 필요치 않고 발표를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스스로 남보다 잘 읽어나가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 일으켜 주며 輪讀順序가 올때까지는 다른 類의 讀書가 가능하다. 그러나 輪讀會式의 短點은 輪讀順序가 올때까지 자칫하면 讀書를 방치하기 쉬운 것이다.

研究會式은, 독서회의 leader를 中心으로 강의를 듣

7) 彌吉光長, 靑少年圖書館의 問題點의 檢討(上) 圖書館界 第27卷 第2號 p. 36.
8) Barnes, Melw. A History of Childrens Libraries in Manchester. Manchester Review 11 (Winter) p. 80, 1966.
9) 彌吉光長, 靑少年圖書館의 問題의 檢討(下) 圖書館界 第27卷 第3號 p. 60, 1975.

고 作品의 背景, 主題 및 共同의 疑問點 등을 서로 토의하여 해결하여 나가는 것으로 一名 Tett會式 또는 세미나式이라고도 한다.

發表會式은 會員 各自가 서로 다른 冊을 읽고, 읽은 책의 내용이나 감상을 會中時 發表를 하고 發表에 따른 問題를 서로 토의하여 옳은 점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方法이다.

發表會式의 장점은 同一書가 不必要하고 獨善的 見解를 대화를 통해 是正하게 되고 스스로가 읽지 않은 책의 內容이더라도 남들이 읽은 책의 內容說明을 듣고 作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그리고 이밖에도 회원 누구나가 지정한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하는 方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자칫하면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일정한 책의 한대목만을 그자리에서 교대로 읽고 그것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상의 여러가지 독서회 운영방식이 있는데 독서회를 여는 목적은 獨自的인 讀書觀이 서 있지 않은 청소년이기에 자칫하면 읽는 방식이라든가 견해가 독선에 기울어지거나 발표능력이 부족하다든가, 편견에 기울여지지 않도록 올바른 思考力을 갖게 하고 民主的 對話熏련을 기르는데 있다.

특히 혼자서 하는 독서는 쉽게 싫증을 느끼게 되지만 한달에 한두번 갖는 독서회에는 싫증보다는 격려가 될 수 있고 또한 발표할 기회가 있으므로 인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도적인 노력이 쌓이면 독서 습관이 형성되고 따라서 무질서한 독서가 아니라 체계있는 독서를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알찬 독서력을 키워 나갈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독서를 게을리 하고 독서지도를 올바르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독서회의 조직권장은 앞으로 청소년들의 사회문제화를 淳化시키는데 커다란 보탬이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6. 우리나라에서의 靑少年을 爲한 讀書教育

1) 靑少年問題 現況

靑少年犯罪의 集團化 現象은 어느나라에 있어서나

成年犯罪에 비해 集團化 傾向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樣相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成年犯罪의 共犯率은 27.44%에 達하고 있다.

그 原因은 靑少年들은 心理的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共犯인 경우, 心理的相互補強이 되어 犯罪를 容易하게 達成할수 있다는 心理的要因도 있었지만 오늘날「그룹」形成機會가 많아진데에 그 決定的要因을 지적할 수 있다.

즉 工場, 再修學院, 「그룹캠핑」, 「그룹」해수욕장 등이 그것을 充分히 뒷받침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서울 少年院에서 調査한 資料에 의해서도 단독범이 77%를 차지하고 있으나 2名 以上の「그룹」범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가리켜 주고 있다.

2) 年少化傾向

또한 近間에 우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경향은 靑少年의 犯罪가 차츰 年少化 되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다음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 청조사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들어「하이틴」(18-19세)보다「로우틴」(14-16세)의 少年犯罪 비율이 많아져 가고 있다. 즉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증감비율을 1967년과 1969년을 비교 검토해 보면 14세 미만이 9.8%, 14세가 5.1%, 15세가 8.8%, 16세가 12.7%, 17세가 17%, 18세가 21.3%, 19세가 25.3% 였고 1969년에 「로우틴」이 늘어나 14세가 5.6% 15세가 9.5%, 16세가 41.1% 17세가 19.2%, 로 증가했으며 1975年度의 靑少年의 풍기사범 177,000件中 16세~19세 계층이 68.6%인 122,000名을 차지하고 있다.

3) 都市集中化傾向

청소년범죄의 또하나의 趨勢는 大都市集中化現象이다. 즉 청소년 범죄의 3분의 2가 서울 부산 등 大都市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특히 서울은 전체 청소년범죄건수의 4분의 1을 넘는 26.4%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地方의 靑少年犯罪의 增加率이 緩慢한 폭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서울은 1974년에 13,456명에서 1975년에는 15,571명으로 7.6%가 증가한 5,587名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청소년범죄의 都市集中化 경향은 도시는 人口가 많다는 단순한 이유만이 아니라는 것이 통계수자상

年度別	罪名別													
	殺人	強盜	強姦	放火	暴行	竊盜	傷害	恐喝	脅迫	橫領	賭博	贓物	詐欺	其他
1970	52	546	485	31	17,340	14,540	1,032	297	41	281	56	506	261	3,374
1975	85	1,055	858	52	26,830	21,120	917	213	28	488	193	774	553	5,880

으로 나와 있다. 즉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19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인구 증가율은 14%였으나 청소년범죄의 증가율은 31%로 나타나 있는데 이를 도표로 보면 위와 같다.

4) 注力해야 할 靑少年 讀書教育

우리나라에서의 각급 圖書館들은 예외없이 靑少年들을 爲한 열람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날로 靑少年들의 社會問題를 야기시키는 빈도 수는 높아져, 뜻있는 분들의 개탄을 자아 내고 있다.¹¹⁾

오늘날 학교교육은 교과위주의 수업에도 쫓기는 형편을 감안할 때 모든 기존 讀書施設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청소년들로 하여금 독서를 통한 정서교육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¹²⁾

독서 교육이란 물론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永續教育(Life long education)으로 어려서 부터 생활화되고 습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나 앞으로는 학교 및 가정교육을 통한 의도적인 독서교육과 체계적인 지도가 뒤따라야 하겠다.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독서교육은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¹³⁾

오늘 날의 독서교육도 이러한 원칙에서 전개되어야 함은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유관된 많은 독서의 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이 독서를 하도록 제정하여 전국민의 독서환경을 한층 調和있게 조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독서를 통한 정서감을 살찌우도록 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과제라고 필자 나름대로 생각되어 청소년들을 爲한 讀書教育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아울러 이제까지의 公共圖書館의 讀書機能을 靑少年들을 爲해 가일층 역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11) 趙海衡, 靑少年善導의 理論과 實際, 三和出版社, p. 8, 1975.

12) 梁泰鎮, 讀書와 環境, 도철월보 Vol. 15, No. 9, p. 2.

13) 梁泰鎮, 讀書教育和 圖書館의 役割, 도서관 Vol. 31, No. 4, p. 20~26.

(25面的 繼續)

4. 맺는 말

비단 學問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一般知識人 혹은 文化生活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日常生活에서 많은 책을 읽을 필요성을 알고 있다. 많은 책을 읽기 위해서는 讀書力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온 國民의 讀書力은 國力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루 속히 이 讀書力을 啓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명백하지 못하다. 물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모든 教師가 讀書指導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뒷받침을 學校圖書館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讀書指導는 제3항에서 언급한 네계층의 讀書指導教師가 지도하는 것과 같은 진단, 교정, 평가 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司書教師들은 스스로 느낄 줄 안다.

그렇다면 外國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學校마다 司書教師와는 다른 讀書指導教師를 교육시켜서 배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다. 예산과 교육과정의 시간배정문제 등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도 통합여부를 연구하고 있는 형편이라면 이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學校圖書館과 이를

운영담당하고 있는 司書教師는 제2항의 [별표 1]에서提及한 바의 讀書指導를 위한 諸般要素의 構造化에 표시된 모든 업무를 한사람이 담당해야 될 형편이다. 그러나 司書教師란 직업이 현재 圖書館의 업무만 해도 과중한데다가 教師로서의 進路問題가 차단되어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全國 초·중·고등학교에 T/O가 다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의 讀書指導는 出發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以上の 問題點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圖書館法이나 教育法을 개정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問題들이 더욱 연구검토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特別히 현재의 學校圖書館에서 一元化돼 있는 司書教師와 보조원이란 제도를 圖書館運營과 讀書指導를 주무로 하는 教師職과 圖書館資料를 정리 보존하는 一般職인 學校司書도 二元化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